

Part 1 — 돈의 종말 (Q&A)

1월 5주차 Q&A — 급락 시그널과 그린란드 이슈

· 정리 2026-05-13

급락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 살아있는 신호는 단 하나

박종훈의 경제로드맵 세 번째 Q&A 시간. 수강생 세 분의 질문을 따라가면 같은 시대 메시지가 보입니다 — 의도적 과열장에서 살아있는 신호는 거의 다 마비됐다는 인식.

Q1은 잠자는 강아지님의 질문. 코로나 시국 같은 급락장을 미리 알 수 있을까. 강사의 답은 명확합니다 — 이번엔 외생 변수가 아닌 의도적 과열이라 자발 긴축 가능성 0.

Q2는 그린란드 야욕이 어디까지 갔는지. Q3는 덴마크 1억 달러 매각의 의미. 세 질문이 향하는 결론은 미국 시장의 단 하나 살아있는 신호와 한국이 함께 들여다볼 환율 임계점입니다.

이번 회차는 행동 권고보다 신호 관찰의 결입니다 — 매수·매도 권유 없이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읽는 법.

1개

살아있는 4 신호 중 인플레이·노동·달러는 마비. 오직 금리만 살아남았다

트럼프가 자발적 긴축할 가능성 0인 시장에서 — 무엇을 봐야 폭락을 미리 알 수 있을까?

Q1 도입 — 코로나 시국과 이번 시국은 다르다

수강생 잠자는 강아지님의 질문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 코로나 시국 양적완화가 주가 폭등·폭락을 이끌었듯, 이번에도 폭락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 강사는 질문 자체를 놀랍다고 평가합니다.

왜? 지금이 **존 템플턴 4단계 중 적어도 3단계 낙관 구간**이기 때문. 신규 증권 계좌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가는 계속 오르겠네" 낙관에 빠져 있을 때 폭락 신호를 묻는 질문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강사의 진단부터 정리합니다 — 팬데믹 같은 외생 변수로 인한 급락은 어떤 지표를 봐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경제 외적 변수이기 때문. 단, 팬데믹 후 양적완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주가 반등합니다. 연준 돈 푸는 건 강력한 상승 신호 —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은 외생적이 아닌 **내부의 점진적 불균형**이라 —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카드부터 그 방법을 짚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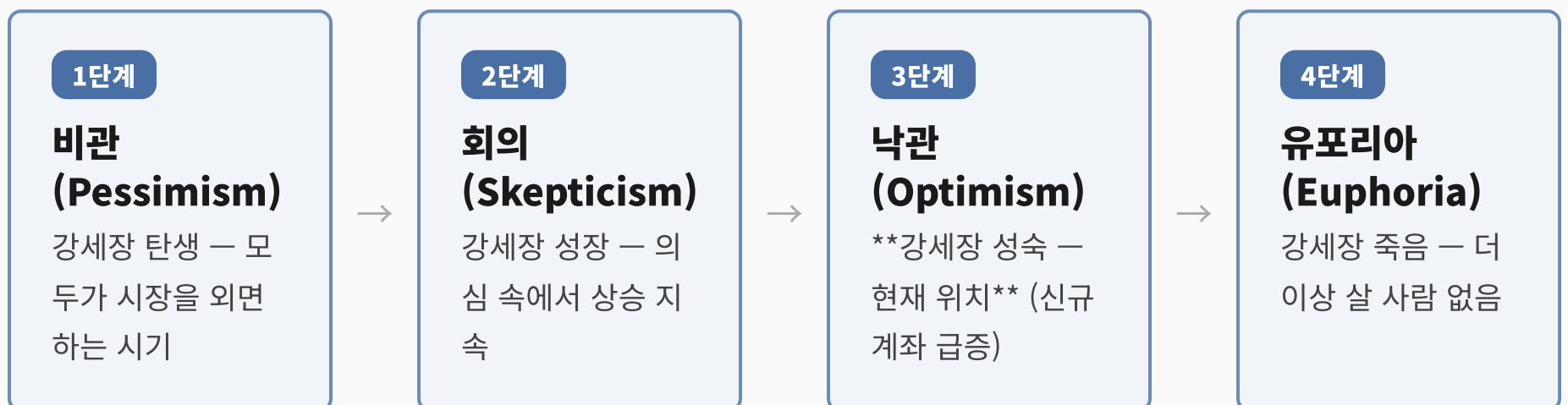
존 템플턴 4단계 — 지금은 3단계 낙관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짙은 강세장 4단계는 시장 심리의 흐름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유포리아) 속에서 죽는다.**

지금 시장은 적어도 3단계 낙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신규 증권 계좌가 급증하는 단계 — 새로 등장하는 매수 주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4단계 유포리아에 들어가서 진짜 극한의 행복감을 느끼면 그때는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버블이나 진짜 상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장을 맞을 수밖에 없는 흐름 — 강세장의 자연 구조입니다. 다음 카드에서 "그런데 이번엔 단순 강세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의도적 과열"이라는 강사 진단을 봅니다.

존 템플턴 4단계 — 강세장의 자연 흐름



이번엔 의도적 과열 — 트럼프 중간선거 사활

이번 상승은 누가 뭐래도 **의도적 과열**입니다. 24년 바이든이 대선 승리를 위해 미국 경제를 엄청난 과열로 이끌었고, 25년 트럼프가 정권 잡자마자 긴축할 이유 0 —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2026년 11월 중간선거**입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그다음부터 트럼프의 나머지 2년은 사실상 레임덕 — 정권 잡은 건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정권을 가져가려면 무조건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미국 선거 필승 방정식 = 과도하게 돈 풀고 자산 시장 팽창. 한국 지방선거도 진보·보수 막론 어느 정권이나 과열을 일으키려 합니다 — 잘하는 정권과 못하는 정권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정권이나 선거 전에는 경기 활성화·주가 상승에 최선을 다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 트럼프 본인이 먼저 긴축할 가능성 = **제로**. 그러면 어떤 게 시장 폭락 신호가 될 수 있을까. 강사가 분석하는 4 신호를 다음 카드부터 따라갑니다.

강사는 시작부터 단호합니다 — "이건 신호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큼니다." 의도적 과열은 결국 어떤 임계점에서 균열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4 신호 — 3개는 마비

강사가 분석하는 4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레이션·노동시장·달러 가치·금리. 결론부터 — 앞 셋은 모두 마비됐고 **금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호**입니다.

표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명확해집니다. 각 신호별 작동 가능성과 한계를 강사가 짚는 정확한 진단대로 봅니다.

다음 카드부터 한 개씩 짚어보면서 — 왜 인플레이션은 작동하지 않는지, 노동시장은 왜 노이즈인지, 달러 가치는 왜 무의미한지를 봅니다. 사실 이 4 신호 분석은 다음 본강의 part 2-1강 (채권과 금리)에서 본격 다룰 신호등 룰북의 사전 기초 역할 — 강사가 미리 짚어둔 단서들입니다.

■ 살아있는 4 신호 — 강의 §4 진단

신호	작동 가능성
인플레이션	마비됨 — 트럼프 연준 압박, 3% 신호 작동 X
노동시장	무용지물 — 삼의 법칙은 후행 변수, 노이즈
달러 가치	무의미 — 미국은 패권국, 달러 하락 시 환영
금리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호

인플레이션 신호 마비 — 트럼프가 연준 압박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신호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3%가 기준 — 그동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절대 돈을 못 풀었습니다. 시장의 가장 강한 안전장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연준을 압박해 봤기 때문에 **이 신호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3%가 넘어도 트럼프는 올 연말까지 계속 돈을 풀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눈과 귀를 가린 상태 — 적어도 중간선거까지 인플레이션은 신호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가 된다? 이는 당장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가 넘게 뛰려면 당장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3%대 수준이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돈을 풀려고 할 겁니다. 5%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주가 하락 신호이지만 — 트럼프가 계속해서 유가를 통제하는 한, 미국의 물가가 막 5%씩 오를 일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선거까지 인플레이션 신호는 막혀 있습니다.

노동시장 — 삼의 법칙은 후행 노이즈

두 번째는 노동시장. 강사가 가장 쓸데없는 법칙이라 짚는 게 **삼의 법칙(Sahm Rule)**입니다. 일단 "룰"이라고 법칙을 붙이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 법칙이라는 건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검증됐을 때 붙이는 건데 갑자기 삼의 룰은 말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 **노동시장은 후행 변수**이기 때문에 삼의 법칙 따위는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법칙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외부 자료가 강사의 진단을 정확히 검증합니다. 2024년 paper에 따르면 삼의 법칙은 **경기 침체가 시작된 후 4개월이 지나야 유용한 신호**가 됩니다. 1950년 이래 **최소 4번의 false positive** — 실업률 +0.5%p 상승 후 침체 없었던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응답률 하락 중인 CPS 표본(약 6만 가구) 데이터 품질 이슈까지 겹쳐 Richmond Fed는 2025년 7월 주간 실업급여 청구 데이터 기반 신규 지표 **SOS(Scavette-O'Trakoun-Sahm-style)**를 발표했습니다. (+3)

강사가 "다음부터 삼의 법칙이 나오면 그냥 그 기사를 접으세요"라고 단호한 이유 — 학계도 인정한 후행 한계입니다.

금리만이 살아있다 — 10년물 1.5% → 4.42%

강사는 미국에 남아 있는 마지막 신호 = 금리라고 짚습니다. 트럼프가 다른 건 압박하거나 인플레이션은 무시할 수 있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왜? **미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 10년물 국채**입니다. 2010년대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평균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는 4.2%. 거의 세 배가 됐습니니다.

이게 만드는 문제 — **2016년에 발행한 10년물 국채가 이제 2026년의 만기**가 됩니다. 이전 발행 금리는 1.5%인데 새로 발행할 땐 4.2%. 미국이 이 국채를 갚을 능력이 되느냐? 미국 적자는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한 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1.5%짜리가 만기 되고 4.2%짜리를 신규 발행하면 **이자 부담이 점점 폭증**합니다.

강의 후 4개월 흐름은 미세 추가 상승 중. [2026-05-08 4.38% / 5/12-13 4.42%](#)까지 도달 — 4.5% 노란불 경계 접근 중. (+1)

다음 카드에서 베센트의 단기채 트릭과 그 한계를 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 1.5% → 4.42% (10여 년)



+1 미국 10년물 4.38~4.42% [advisorperspectives.com](#)

베센트 단기채 위주 — 그래도 오르면 위험 신호

강사가 짚는 흥미로운 정량 왜곡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조차 엄청난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장기채는 거의 발행하지 않고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면서 장기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장기채 금리가 오른다? "이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큼니다." 인위적으로 누른 신호가 자연히 위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 압력이 만만찮다는 의미입니다.

강의 후 4개월 흐름이 정확히 그 진단을 보여줍니다 — 5월 4.38~4.42%까지 미세 상승 중. 베센트의 단기채 위주 정책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자연 상승. 4.5% 노란불 경계 접근 중.

이 부분은 강사가 다음 본강의 **part 2-1강 (채권과 금리)**에서 자세히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호등 룰북도 거기서 본격 풀어줄 예정 — 강사가 이번 회차에서 미리 준 단서입니다.

다음 카드부터는 한국 시장 — 한국에선 무엇을 봐야 할까.

한국은 환율 — 1,500/1,550/1,600원

한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한국에선 환율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 환율 다음에 움직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사가 짚는 3단계 임계점 — **1,500원**이 1차 경계 경보, **1,550원**부터 압박 본격 시작, **1,600원**까지 가면 완전 비상 신호. 이 가운데 1,550원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한국은 패권국이 아니어서 환율이 올라가면 더 이상 돈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뿌려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환율이 올라가면 더 이상 돈을 뿌릴 수가 없거든요. 다음 카드에서 한국 25년 폭등의 비결을 봅니다 — 결국 환율 임계점이 그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 한국 환율 신호 3단계 — 강의 § 6 명시

1,500원 1차 경계		1차 경계 경보
1,550원 압박 본격		큰 압박 시작
1,600원 완전 비상		비상 신호

미국은 금리, 한국은 환율 — 미래 보는 결정적 변수

25년 폭등 비결 — 재정 + 통화 + 국민연금

강사가 한국 25년 시장의 비밀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2024년보다 2025년 경제가 훨씬 나빴지만 25년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

첫째 — 24년이 마이너스였으니 25년 기저효과. 둘째 — 막대한 재정 지출 + 한국은행 통화 정책으로 정말로 막대한 돈을 뿌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흐름.

셋째 — 그리고 핵심.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한국 주식에 대해 전체 운용 자금의 15%만 사도록 내부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이 적어도 **16~17%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 만약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더 이상 돈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 결국 한국 시장 흐름의 출발점은 환율 임계점.

다음 카드부터 Q2 그린란드 이슈로 넘어갑니다 — 트럼프의 살라미 전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Q2 — 그린란드 살라미 전법

두 번째 질문은 김상호_청풍님의 그린란드 이슈. 표면적으로는 트럼프가 무력 침공 안 한다·관세 부과 안 한다 발표하면서 일단락된 것 같지만 — **그린란드 야욕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트럼프 협상 방식은 과격한 제안(무력 침공)으로 상대방을 흔들어 협상장에 끌어내는 것. 이미 나토·덴마크·그린란드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 **트럼프의 절반의 승리.** "그린란드는 협상의 대상 자체가 돼서는 안 되는데 협상장에 나오게 됐다"는 게 핵심 — 미국에게 이미 일정 부분 양보가 결정됐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 핵심은 두 가지.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유익할 것" + "그린란드 포함한 골든돔 구상". **골든돔에 그린란드 포함 = 영토 야욕 명시입니다.**

■ 트럼프 살라미 전법 — 얇게 썰어 조금씩

1단계 (현재)

자원 독점·우선 접근권

그린란드 희토류 정제·매장
자원 확보



2단계

군사 기지 강화

골든돔 방공망 + 미군 인프라
확대



3단계

토지 매입 점진 확대

홍콩 99년 패턴 — 시간 들여
야금야금

그린란드 희토류 — 미탐사 80%에 3,600만 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원하는 1순위 = **희토류**. 매장량 비교를 보면 그린란드의 가치가 명확해집니다. 중국 4,400만 톤(미국 압박 카드), 미국 190만 톤, 그린란드 공식 150만 톤.

그런데 그린란드는 **80%가 동토 미탐사 지역**입니다.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어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추정 매장량은 무려 **3,600만 톤**.

특히 가장 중요한 희토류는 **네오디뮴**인데 — 이게 미국 땅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강사는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첫 번째 희토류의 접근권을 이번에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린란드 문제는 절대 끝난 게 아니"라고 짚습니다.

다음 카드에서 미국·그린란드·사우디 삼각 동맹의 실제 진척을 봅니다.

■ 희토류 매장량 — 그린란드의 비밀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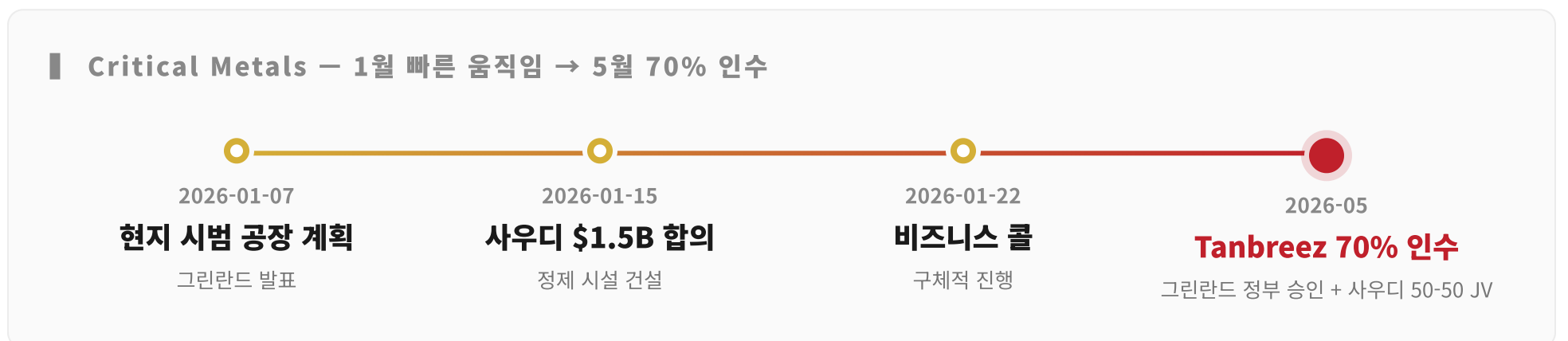
국가	매장량
중국	4,400만 톤 (미국 압박 카드)
미국	190만 톤
그린란드 (공식)	150만 톤
그린란드 (추정)	3,600만 톤 (미탐사 80%, 네오디뮴 풍부)

삼각 동맹 — 1월 빠른 움직임 → 5월 70% 인수

희토류는 캘 때보다 정제할 때 방사성 물질 등 위험 물질이 대량 발생합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이 가장 반대할 게 자기 땅 정제. 그래서 사우디가 등장 — 자기 땅을 정제 시설로 내주겠다 (어차피 무인지대).

미국 기업 **Critical Metals**의 1월 빠른 움직임이 강사가 짚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 1/7 그린란드 현지 시범 공장 건설 계획, 1/15 사우디 15억 달러 규모 희토류 정제 시설 합의, 1/22 그린란드 시범 공장 비즈니스 콜. 날짜가 따박따박 맞는 게 미국 정부와 모종의 딜이 의심될 정도.

강의 후 4개월 만에 진척이 본격화됐습니다 — Critical Metals가 [2026-05 그린란드 정부 승인](#)으로 **Tanbreez 프로젝트 운영사 70% 인수**. Tanbreez는 디스프로슘·터븀·네오디뮴 등 중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 규모. 사우디와의 **50-50 합작 회사**도 발표 — 25% 정제 비구속 합의. 첫 출하는 2028년 말~2029년 초 예상. (+2)



한국 — 희토류 밸류 체인의 핵심

강사가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 정제된 희토류를 미국이 직접 쓸까? 아닙니다. **대부분 한국 제조업에서 사용 → 완제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희토류를 잘 개발해서 사우디에서 정제하면 우리가 중간재로 쓰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입장에서 들여다볼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극 항로 개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째 그린란드 희토류 정제, 가급적이면 한국 기술로. 인구 밀도 낮고 환경 규제 낮은 나라(사우디 같은 중동 무인지대)를 찾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제 기술 진입**. 한국은 미국·호주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우리가 정제된 걸 쓰는 입장이라 니즈를 가장 잘 압니다. 어쨌든 이 밸류 체인에 들어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투자 양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든돔까지 가면 **북극해 시대의 핵심축 = 그린란드 - 유럽 - 한국**의 놀라운 축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사가 짚은 "앞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다"는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다음 카드부터 Q3 덴마크 미 국채 매도 —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다.

Q3 — 덴마크 1억 달러 = 잉크 한 방울

세 번째 질문은 동구동구님의 덴마크 미 국채 매도 여파. 그린란드 사태와 관련해서 덴마크에서 미국 국채를 전량 매도한다고 했는데 경제적 충격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강사 답: 금액이 **아주 작습니다**. "전량 매각"이라는 단어가 화제성을 줬을 뿐 실제 충격은 0입니다. 덴마크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국 국채를 판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작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60억 원 정도입니다. 미국 경제 규모나 미국 국채 시장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전체 국채 시장은 유통 기준 31조 달러 정도 — 그러니까 미국 국채 전체 물량의 **0.003%**, 정말 보이지도 않습니다. 강사 비유 그대로 "바다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입니다.

■ 덴마크 매각 vs 미국 전체 국채 시장

덴마크 연기금 매각 (\$1억)		1,460억 원
미국 전체 국채 시장 (\$31조)		유통 기준

비중 0.003% — 바다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

동맹국 무기화 가능성 — 후속 사례 본격화

그래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만 미 국채 팔고 금 사던 패턴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얼마든지 미 국채를 팔 수 있다**는 신호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태가 일어나니까 금값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관련해서 분명히 미국이 무력 침공도 안 하겠다 + 관세도 부과하지 않겠다 했는데 — **금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큰 변화의 단초가 열렸다는 시장 인식.

강의 후 4개월 흐름이 강사의 진단을 정확히 검증합니다. 강의에서 언급된 덴마크 연기금은 [AkademikerPension](#)으로, 공식 사유는 "미국 정부 재정 약화"였습니다. 베센트는 다보스에서 "Denmark is irrelevant"라며 무시했지만 — 그 후 [스웨덴 Alecta 펀드](#)는 2025년 초부터 누적 \$7.7~8.8B의 미 국채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oody's가 2025년 5월 미국 신용등급을 Aaa→Aa1로 강등](#)했고, 재정 우려와 트럼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명시한 점이 강의 § 12 진단의 직접 실현 사례. († 4)

동맹국 미 국채 매각 후속 흐름

주체	규모/내용
덴마크 AkademikerPension (2026-01)	\$100M — 강의에 언급된 케이스
스웨덴 Alecta (2025년 초 ~)	누적 \$7.7~8.8B — 본격 매각
Moody's 미국 신용 강등 (2025-05)	Aaa → Aa1 — 재정 우려·트럼프 무역 정책 명시

강의가 짙은 모니터링 신호 4가지

본 회차에서 강사가 명시한 권고는 두 가지 — 미국 시장은 금리(10년물)를 보고, 한국 시장은 환율을 보라. 그 외엔 분석·신호 관찰 톤이 압도적입니다.

회차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의도적 과열장에서 자발 긴축 가능성 0, 인플레이·노동·달러 신호는 모두 마비, **금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호**. 미국에선 10년물을, 한국에선 환율을 봐야 한다는 게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린란드 살라미 전법은 4개월 만에 70% 인수와 사우디 JV로 가시화됐고, 덴마크 잉크 한 방울이 스웨덴 Alecta 누적 \$7.7~8.8B 매각으로 본격화. 다음 강의에서 베센트 단기채 정책과 신호등 룰북을 본격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트럼프 중간선거 사활이 만든 의도적 과열장에서 살아있는 신호는 단 하나, 금리뿐입니다. 미국에선 10년물을, 한국에선 환율을 봐야 한다는 게 강의의 결론. 그린란드는 끝나지 않았고 — 미국·그린란드·사우디 삼각 동맹은 4개월 만에 70% 인수와 JV로 가시화. 덴마크 1억 달러는 잉크 한 방울이지만 동맹국 무기화 가능성이 열린 시대 — 스웨덴 Alecta 누적 \$7.7~8.8B 매각이 그 흐름입니다.

다음 강 — Part 2-1강

돈 가격을 알아야 돈 번다

베센트 단기채 정책의 본격 풀이 + 신호등 룰북 (미국 10년물 5% 발작 버튼)

본 콘텐츠는 강의 정리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외부 자료(+1~+4)는 강의 시점 이후의 정량 변화와 사례 후속을 보강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